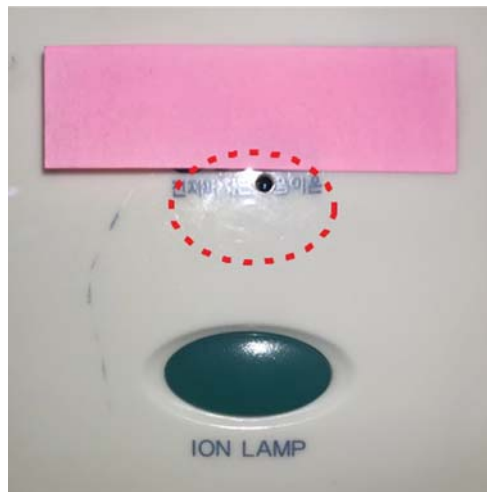


# “어, 한국 모텔 같은데”...제보로 ‘몰카 생중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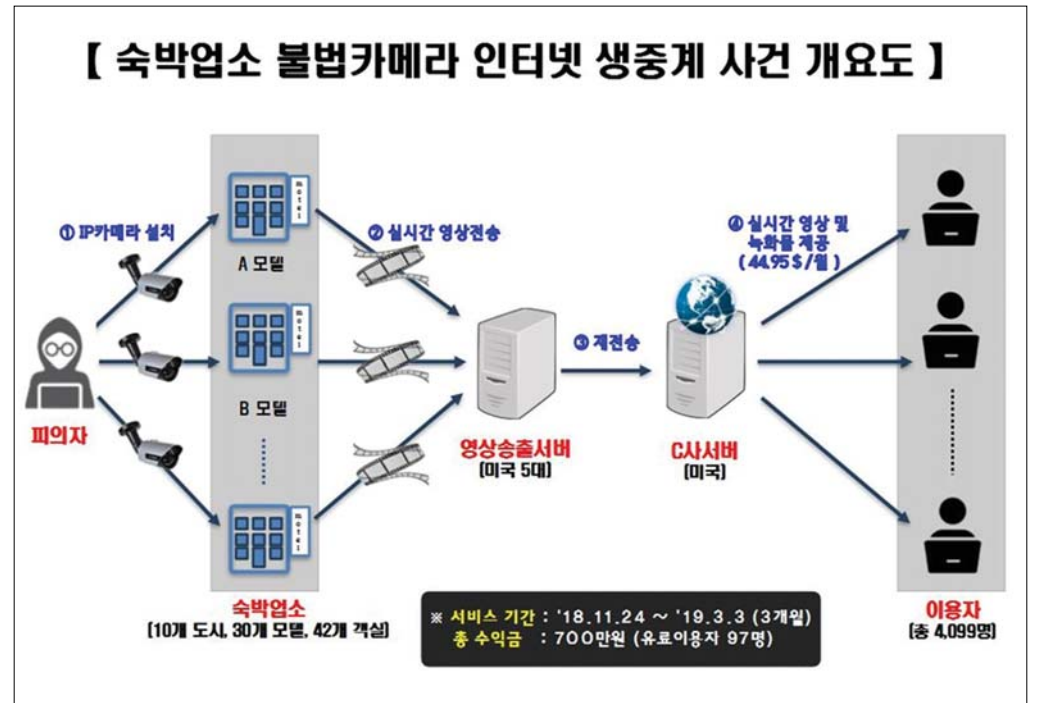
모텔 객실 내 셋톱박스 틈새에 초소형 IP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모텔 객실 내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초소형 IP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모텔 객실 내 콘센트 박스에 초소형 IP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영남·충청 지역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1600여명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판매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투숙객 1600여명 사생활 중계·판매 일당 구속  
셋톱박스·콘센트카메라 설치해도 눈치 못 채  
“해외사이트에 국내 모텔 영상” 제보 수사 착수  
피의자들 “서울 등 전국 모텔로 진출할 계획해”  
경찰 “모텔 관리자·이용자 철저한 점검 필수적”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1mm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한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면서 ‘모텔 몰카’ 공파가 커지고 있다. 이들 일당이 몰래 촬영한 모텔 투숙객은 무려 16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사이트 개설 2주 만에 제보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고, 이달 초 일당을 검거해 그나마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초까지 지방 지역 30개 모텔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 음란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지난 8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등 혐의다.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

해 모텔 객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VOD 판매 방식으로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8일 한 시민의 제보로 출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고자는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해외(음란) 사이트 중 배경이 국내 모텔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실시간 화면인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박씨와 김씨는 유사한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 이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텔을 직접 다니며 객실을 빌려 셋톱박스 콘센트박스,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이 회수한 IP 카메라의 렌즈 크기는 1mm로 육안으로 들여다봐도 알아채기 쉽지 않은 정도이다. 1mm보다 큰 틈새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침대를 바라보게 돼 있었는데 수사를 하다보니 약간 카메라 방향이 옆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며 “정소를 하다가 툭툭 건드려 위치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셋톱박스가 놓인 탁자를 청소하면서 가까이에서 들여다 봐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박씨 등은 자신의 거주 소재 모텔을 시작으로 지방 모텔에 카메라를 주로 설치하며 차츰 그 범위를 확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 등 전국으로 진출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들의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개설 약 2주 만에 신고자의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빠른 제보 덕분에 서비스 기간이 길지 않았다. (더 많은 피해자를 낳지 않고)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관리자 등 관계자가 각 객실을 다니면서 구멍, 틈새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용자 역시 객실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게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켜 반짝이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찾으려면 비교적 용이하게 탐지할 수 있다”며 “이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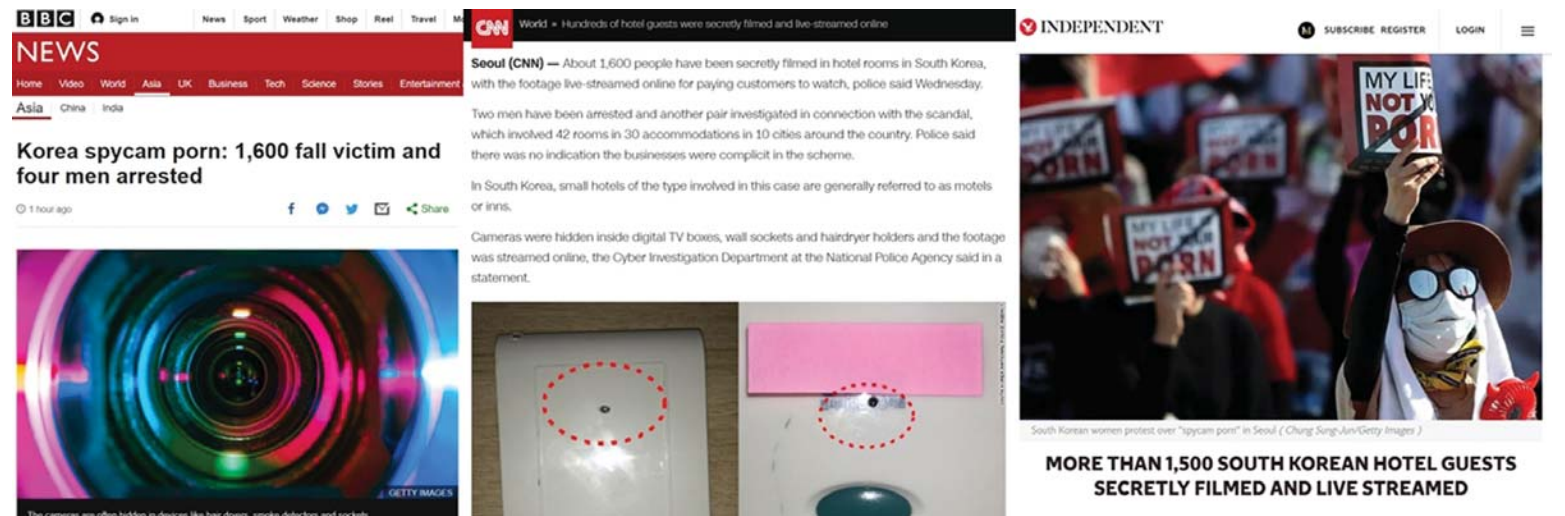
뉴스5

## 韓숙박업소 몰카사태, 외신서도 주목

“한국, 불법촬영물 심각한 문제...몰카로 수감된 사람 2%도 안돼”

한국에서 벌어진 숙박업소 투숙객 대상 불법촬영(몰카) 사태가 해외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한국 내 몰카 문제를 ‘유행병’ 또는 ‘관습’으로 지칭했다. 20일(현지시간) CNN과 BBC, USA투데이,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의 숙박업소 몰카 사태를 보도했다. 외신들은 촬영 수법과 촬영물의 온라인 생중계 및 이를 소비한 사이트 가입자, 유료회원 숫자 등을 세세히 전했다. 이들 매체는 또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몰카 적발 건수를 언급하며 민란한 몰카 사태를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몰카 범죄를 규탄한 해화역 시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BBC는 “한국에서 비밀스런 성관계·나체 촬영은 유행병으로 묘사돼 왔다”며 “이는 시위를 촉발시켰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또 “2017년 몰카와 관련해 (한국에서) 5400명 이상이 체포됐지만, 수감된 사람은 2%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CNN 역시 “한국은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수만명의 여성들이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관습에 항의하고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등에서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인디펜던트는 “비밀촬영이 한국에서 문제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몰카(불법촬영) 사태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에서의 몰카 사태를 ‘유행병’, ‘관습’ 등으로 칭하며 비판적 어조로 전했다. 사진은 외신들 보도 캡처.

가 된 건 이번이 전혀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국 여성들 그리고 때때로 남성들은 옷을 벗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

면을 포착하는 몰래카메라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아울러 리벤지 포르노 문제와

불법촬영물 공유 운상이었던 소리넷을 한국에서의 몰카 민란 실태로 거론하기도 했다. 뉴스5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